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 사고 억제 효과

박진아 서은국*
연세대학교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적 특성의 억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의 집합주의 성향을 측정하고 집합주의적 사고를 억제하도록 한 뒤 인지,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사고억제 조건에서 집합주의적 특징이 감소한 반면,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 사고억제 조건에서 집합주의적 특징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집합주의/개인주의적 요소의 결핍감을 보상하려는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어 : 집합주의, 사고 억제, 개인차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부합하는 행동은 늘리는 대신, 기존문화와 관련된 행동 특성은 억제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사회 적응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것만큼 합리적인 선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 이민자나 유학생들은 모국에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유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은 자녀에게 전통적인 가치관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교육시키며(Dion & Dion, 2001; Hynie, Lalonde, & Lee, 2006), 학교나

직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되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기존 문화에 맞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ynie, Lalonde, & Lee, 2006). 즉, 사람들은 기존의 문화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문화적 특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집합주의/개인주의가 억제될 때 문화적 특성을 잃지 않기 위해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까? 사람들은 집합주의 또는 개인주의 성향이 결핍되었을 때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주의적 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단과 관련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개인주의적 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기 독특성과 관련된 행동을 증가시킨다(Brewer, 1991;

* 교신저자 : 서은국,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46,
E-mail : esuh@yonsei.ac.kr

Helgeson, 1994 참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억제된 문화와 관련된 행동 특성을 최소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노력은 해당되는 문화적 요소가 쉽게 결핍될 수 있는 개인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집합주의/개인주의 수준의 개인차에 따라 문화적 특성의 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예; 집합주의/개인주의)에서 집합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 억제의 상호작용이 문화와 관련된 이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실시되었다.

문화적 성향 : 행동, 인지적 특징

집합주의/개인주의는 동서양 문화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소속된 “집단”을 중요시하고 집단 내 조화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과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인다(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Triandis, 1995 참고). 따라서 집합주의 성향자들은 내집단의 규범과 계급을 강조하며 상호 의존적이지만, 개인주의 성향자들은 개인의 태도와 이해득실을 중요시하고 상호 독립적이다(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러한 문화적 성향은 개인의 행동, 인지적 특성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Cousins, 1989; Triandis et al., 1990), 개인의 행동을 집단의 속성에 귀인하는 경향을 갖는다(Menon, Morris, Chiu, & Hong, 1999). 또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My’를 ‘나의’ 보다는 ‘우리’라고 번역하며(나진경, 2005), 높은 집합 자존감(Luhtanen & Crocker, 1992)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을 설명할 때 내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반면(Cousins, 1989),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상황 보다 기질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 Peng, 1994).

이처럼 집합주의/개인주의 문화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비단 문화 간 비교 뿐 아니라 문화 내 개인의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라서도 발견되는 차이로 하겠다. 즉, 개인이 어떠한 문화적 성향을 가졌는가에 따라 상이한 행동, 인지 양식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낮다고 해서 집단과 무관한 행동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개인주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낮다고 해서 자기 독특성과 무관한 행동만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 모두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화 성향이 결핍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성향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려는 동기와 집단과 독립적으로 자기 독특성을 유지하려는 동기 모두를 갖고 있다. 집단과 개인을 지나치게 분리시킬 경우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반면, 집단과 개인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경우 자아의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ewer, 1991). 실제로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의 결핍은 심리, 신체적 부적응을 초래한다(예; Fromkin, 1970; Helgeson, 199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집합주의 성향이 결핍된 채 개인주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자살할 가능성과 알코올 및 약물을 사용할 확률이 높으며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Bakan, 1966; Helgeson, 1990; Helgeson, 1993; Snell, Belk, & Hawkins, 1987). 한편, 개인주의 성향이 결핍되고 집합주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 신경증과 같은 내면화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Helgeson, 1994; Saragovi, Aubé, Koestner, & Zuroff, 2002).

따라서 사람들은 집합주의, 개인주의 문화가 억제(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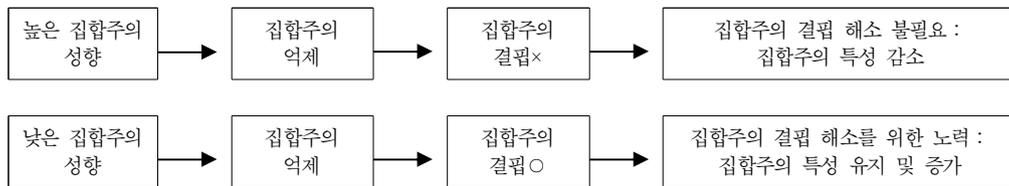


그림 1.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집합주의 억제 효과 차이 모형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문화적 특성을 잃지 않기 위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감옥에 수감되어 기존 내집단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가상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며 (Baumeister & Leary, 1995; Giallombardo, 1966), 자신의 특징이 내집단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내집단 고정관념과 자기특징이 더 유사하다고 평가한다(Pickett & Bonner, 2002, 실험 1). 이와 반대로 내집단과 관련하여 몰개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큰 집단보다는 작은 집단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소수집단에서 자기 독특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Brewer, Manzi, & Shaw, 1993). 마찬가지로 타인과 자신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에도 내집단과 자아의 유사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수동적인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유사성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kus & Kunda, 1986). 즉, 사람들은 집단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동일시되는 경험(집합주의/개인주의의 억제 또는 제한)을 하였을 때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당되는 문화적 특징을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집합주의/개인주의적 특성 억제에 따른 행동, 인지 반응이 개인차와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기본적인 문화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집합주의/개인주의 억제 효과가 개인차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수준으로 집합주의/개인주의적 특성을 억제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문화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개인주의 결핍을 경험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기본적으로 충분한 집합주의적 특성을 보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억제 하였을 때 문화적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즉, 집합주의 억제 이후 집합주의 문화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집합주의 억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아진 문화적 특성이 이후 행동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개인일수록 집합주의적 특성의 억제로 인해 문화적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

다. 집합주의 문화의 억제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집합주의 성향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합주의 성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집합주의적 행동을 억제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그 이상으로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보일 것이다(그림 1).

본 연구는 집합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집합주의 성향의 개인차와 집합주의 억제의 상호작용이 이후의 행동, 인지적 반응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 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의 집합주의 성향을 측정 한 뒤, “태극기”에 대한 사고를 억제하도록 지시했다. Hong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Hong, Morris, & Chen, 2000), 집합주의/개인주의적 문화적 배경을 모두 가진 참가자에게 중국과 관련된 아이콘(예 : 만리장성, 용 문양이 있는 국기 등)을 보여주었을 때 집합주의적 귀인을 하는 반면, 미국과 관련된 아이콘(예 : 백악관, 성조기 등)을 제시했을 때에는 개인주의적인 귀인 양식을 보였다. 즉, 특정한 문화를 상징하는 자극을 떠올리는 것이 집합주의 또는 개인주의적 사고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집합주의 문화와 관련된 자극을 떠올리지 않도록 함으로서 참가자들의 집합주의적 사고 체계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태극기에 대한 사고를 조작한 뒤, 참가자들이 주어진 음절에서 새롭게 완성한 단어의 집합주의적 속성을 측정하였고,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평정하게 했으며, 두 가지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의 개인주의적 해석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정하도록 했다.

방 법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학부생 71명(남자 42명, 여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조건과 통제조건에 무선할당되었으며 이들 중 연구 가설을 눈치 챌 한 명의 참가자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집합주의 측정 및 독립변인 조작

집합주의 성향

참가자의 집합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Triandis, Bhawuk 및 Gelfand(1995)의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집합주의 척도” 중 집합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집합주의 하위척도에는 수평적 집합주의 6문항(예;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화합을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수직적 집합주의 8문항(예; “나는 보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이 있었으며 7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매우 동의함)로 평정되었다. 수평적 집합주의와 수직적 집합주의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모두 .71이었다. 참가자의 집합주의 성향은 수평적/수직적 집합주의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되었다($M=4.43$, $SD=.70$).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집합주의적 사고를 억제시키기 위해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조작하였다(Hong, Morris, Chiu, & Martínez, 2000 참고).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조건의 참가자에게는 주어진 과제를 하는 동안 태극기에 대해 절대로 생각하거나 적지 말라고 지시한 반면, 통제조건의 참가자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종속변인 측정

단어 만들기

단어를 완성하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과제는 특정한 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예; Gailliot, Schmeichel, & Baumeister, 2006). 본 연구에서는 단어 목록을 제시하고 주어진 음절만을 이용해 새로운 다섯 개의 단어를 만들도록 하였다. ‘시민, 소고기, 장국, 대우, 권태감, 연수, 기러기, 관세, 극장, 야속, 안내, 한정’이 단어목록으로 주어졌다. 이와 같은 단어의 음절을 이용해 “군대”, “대한민국”과 같은 집합주의적 속성이 강한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반면, “태연”, “우연”과 같이 집합주의적 속성과 무관한 단어를 완성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이 완성한 단어는 연구 가설을 모르는 두 명의 평가자들에 의해 집합주의적 속성이 7점 척도(1=전혀 관련성이 없다, 7=매우 관련성이 높다)로 평정되었다.

집단에 대한 자존감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적 사고를 억제한 뒤, 집단에 대한 자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Luhtanen과 Crocker(1992)의 집합 자존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 CSE)를 이용하였다. 집합 자존감 척도는 사적 집합 자존감(예;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들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좋다.”), 공적 집합 자존감(예; “전반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체성에서의 중요도(예;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보여준다.”),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도(예;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 자존감은 정적 상관을 갖는다(Luhtanen & Crocker,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합 자존감이 높을수록 집합주의적 인 특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의 주 관심사가 집합주의 성향과 사고 억제의 상호작용이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도’를 제외하고 ‘사적 집합 자존감’, ‘공적 집합 자존감’, ‘정체성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총 16문항을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1, .82, .70이었다.

모호한 그림 해석하기

집합주의/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개인주의적 해석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주어진 그림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고기 떼 앞에서 헤엄치는 장면이었다(Hong et al, 2000). 맨 앞에 위치한 물고기는 물고기 떼와 함께 이동하는 “집단” 중심의 집합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고기 떼를 앞질러 홀로 이동하는 “개인” 중심의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 중 “맨 앞의 물고기는 여러 물고기를 앞질러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개인주의적 해석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코딩되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림을 집합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절차

실험은 한 세션 당 약 2명에서 7명씩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사고 억제 조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할당되었다.

실험실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참가자들을 자리에 앉힌 뒤 ‘설문 1’이라고 쓰여진 설문지 묶음을 나누어 주었다. 설문지에는 참가자의 집합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집합주의적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참가자들에게 집합주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설문지를 넘기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모든 참가자가 설문을 마쳤을 때,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를 조작하기 위한 다음 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약 4분간 글쓰기 과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4분이 지나면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 텐데, 그 즉시 글쓰기를 중단하고 앞으로 나와 두 번째 설문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시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글쓰기’과제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4분간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문법에 맞게 글을 쓸 필요도 없고 감각, 느낌, 기억, 계획, 주의를 끄는 물건 등 글의 내용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글쓰기’ 과제에 대한 설명은 Wegner와 그의 동료들(Wegner, Erber, & Zanakos, 1993)의 사고 억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과제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독립변인 조작을 위해 집합주의 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억제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글을 쓰되 태극기만은 절대로 떠올리거나 글로 적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반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한 지시 없이 자유롭게 글쓰기 과제를 진행하도록 했다. 단, 두 조건 모두에서 태극기를 떠올렸거나 글로 적었을 때에는 종이 위에 표시 하도록 했는데, 이는 독립변인 조작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Kelly & Kahn, 1994; Wenzlaff, Wegner, & Roper, 1988). 글쓰기 과제를 시작한지 4분이 지났을 때, 참가자들에게 글쓰기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나와 ‘설문 2’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설문 2’는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단어 만들기, 집단에 대한 자존감, 모호한 그림 해석)과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조작검증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작검증을 위해 ‘자유롭게 글쓰기’ 과제에

서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Baumeister, 1998 참고). 사고 억제 과정은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에 비해 많은 인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Wenzlaff & Wegner, 2000). 따라서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할수록 사고 억제에 대한 조작이 효과적이었다고 가정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설문을 작성하고 나면,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한 뒤 실험을 끝마쳤다.

결 과

조작검증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조작을 검증하기 위해 ‘자유롭게 글쓰기’과제에서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조건($M=2.14$)에 비해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조건($M=2.91$)에서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보고했다($t(59.80)=-2.20, p<.05$). 한편, 글쓰기 과제에서 태극기를 생각한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사고억제 유무($M_{유}=3.43, M_{무}=3.60$)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68)=.15, p>.10$).

단어 만들기

집합주의 성향과 사고억제의 상호작용이 떠오르는 단어의 속성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이 완성한 단어를 두 명의 평가자들에게 평정하도록 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집합주의 문화는 관계, 소속, 의무, 조화, 위계/지위, 집단 등의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Oyserman et al., 2002). 따라서 평가자들은 완성된 단어가 관계, 소속, 의무, 조화, 위계/지위, 집단과 각각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가자가 평정한 단어의 집합주의 속성은 각 기준에서 부여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되었으며, 두 평가자가 평정한 단어의 집합주의 점수의 평균이 해당되는 단어의 최종적인 집합주의 점수로 산출되었다. 두 평가자간 상관은 $r=.55(p<.05)$ 였으며 참가자가 완성한 다섯 개 단어의 집합주의 속성 평균이 단어 만들기 과제에 대한 집합주의적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사고 억제 후 완성된 단어의 속성이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합주의 성향,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이원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집합주의 성향은 Aiken과 West (1991)의 권고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주효과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사고억제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주변인들만 설정한 모델에서 변인 간 이원상호작용을 추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66)=3.56, R^2=.14, p<.05$). 우선, 참가자의 집합주의 성향이 완성된 단어의 집합주의적 속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했다($\beta=.54, t=3.26, p<.05$). 전반적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완성된 단어의 집합주의 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합주의적 사고억제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집합주의 성향×사고억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beta=-.37, t=-2.27, p<.05$).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참가자들의 집합주의 평균으로부터 $\pm 1SD$ 의 회귀선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1SD),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억제했을 때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집합주의적 속성이 낮은 단어를 완성하는 경향을 보였다($\beta=-.28, t=-1.71, p<.10$). 한편,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1SD), 사고 억제 조건에서 집합주의적 속성이 높은 단어를 완성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beta=.24, t=1.50, p>.10$).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사고 억제가 집합주의적 단어 접근성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태극기 억제에 따른 완성된 단어의 집합주의적 속성 차가 높은 집합주의 성향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자존감

집단에 대한 자존감에서 집합주의 성향과 사고억제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합주의 성향을 중심화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이 유의미했다($F(3, 66)=5.53, R^2=.20, p<.05$). 우선, 집합주의 성향의 주효과가 집단에 대한 자존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61, t=3.82, p<.05$). 즉,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높게 보고했다.

또한, 집합주의 성향×사고억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33, t=-2.05, p<.05$; 그림 3).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1SD),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조건에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조건에 비해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낮게 보고했다($\beta=-.33, t=-2.10, p<.05$). 반면,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1SD),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조건에서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beta=.13, t=.81, p>.10$). 이와 같은 결과는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가 소속 집단에 대한 자존감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태극기 억제가 집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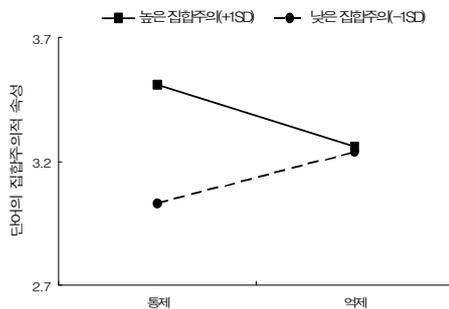


그림 2.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와 완성된 단어 속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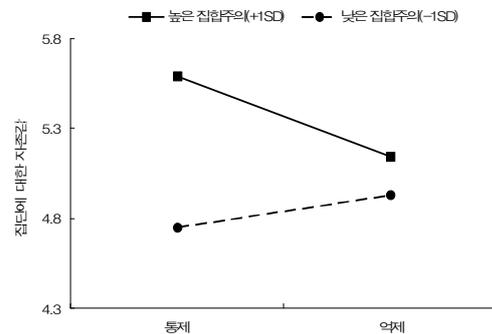


그림 3.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와 집단에 대한 자존감의 관계

대한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집합주의 성향을 가진 참가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집합 자존감(CSE)을 하위척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사적 집합 자존감($\beta=-.44, t=-2.83, p<.01$)을 제외한 공적 집합 자존감과 정체성에서의 중요도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p>.10$). 따라서 집합주의 성향과 사고억제의 상호작용은 공적 집합 자존감과 정체성에서의 중요도 보다는 사적 집합 자존감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집단에 대한 타인의 평판이나 내집단이 자아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느끼는 내집단에 대한 만족감에 비해 안정적인 속성을 띠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호한 그림 해석하기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사고 억제 이후 그림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합주의 성향을 중심화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66)=2.18, R^2=.90, p<.10$). 참가자의 집합주의 성향은 그림에 대한 해석을 유의하게 예측했다($\beta=.42, t=2.47, p<.05$).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그림에 대한 개인주의적 해석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집합주의 성향×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상호작용이 유의 경계선상에 있었다($\beta=-.31, t=-1.81, p<.08$; 그림 4). 우선,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1SD), 통제 조건에 비해 태극기 억제 조건에서 그림에 대한 개인주의적

해석에 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beta=-.13, t=-.78, p>.10$). 한편,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1SD),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조건에서 개인주의적 그림 해석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beta=.30, t=1.78, p<.10$). 이와 같은 결과는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가 대상 행동을 해석하는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호한 그림의 개인주의적 해석에서 태극기 억제가 미치는 영향은 낮은 집합주의 성향을 가진 참가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에 따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이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상호작용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1SD),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조건에서 덜 집합주의적인 단어를 완성하고, 집단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으며, 개인주의적인 그림해석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의 경우(-1SD), 태극기 억제 조건에서 집합주의적 단어를 완성하고, 집단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으며, 개인주의적 그림 해석에 반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그림 해석을 제외한 다른 과제에서는 사고억제의 유의미한 단순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집합주의적인 행동, 인지적 특성을 감소시키지만,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개인은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에 대해 기존의 집합주의적인 행동, 인지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람들은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을 최소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집합주의/개인주의의 결핍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문화적 특성을 회복하려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예; Blanton & Christie, 2000; Brewer, 1991; Brewer, Manzi, & Shaw, 1993; Giallombardo, 1966; Markus & Kunda, 1986).

본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집합주의/개인주의와 관련된 사고를 직접 억제하도록 함으로서 문화적 특성의 억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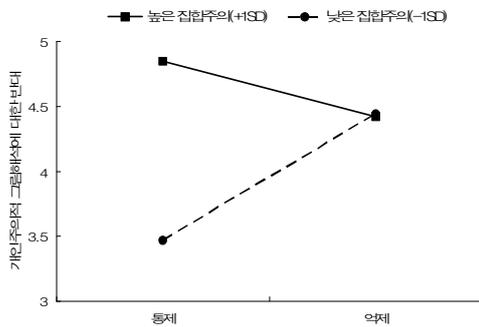


그림 4.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와 그림해석의 관계

조작하였다는데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제한(또는 억제)하기 위해 가상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자아의 행동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과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문화를 상징하는 자극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집합주의/개인주의를 점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집합주의적 특성을 억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가령, 선행 연구에서는 용이 그려진 문양이나 만리장성, 성조기나 백악관과 같은 그림을 집합주의/개인주의적 사고를 점화시키기 위한 자극으로 사용해 왔다 (Hong et al., 2000). 반면, 본 연구는 태극기를 떠올리지 않게 함으로써 집합주의적 사고 체계를 억제시키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화 자극의 점화 효과 뿐 아니라 억제 효과를 새롭게 다루었다는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의 개인차에 따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냈는데 의의를 갖는다. 사람들은 집합주의/개인주의적 특성이 결핍되었을 때 문화적 성향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행동, 인지적 반응을 보인다. 집합주의적 특성의 억제는 집합주의 성향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이 때 개인의 기본적인 집합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합주의)문화적 특성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집합주의적 특성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태극기에 대한 사고를 억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낮아진 집합주의적 특성이 이후 문화와 관련된 행동에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개인은 집합주의적 사고를 억제했을 때 (집합주의)문화적 특성의 결핍을 높게 경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집합주의 성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억제 전과 같은 수준으로 집합주의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 억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대안 가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역설

적 과정 이론”(Wenzlaff & Bates, 2000; Wenzlaff & Wegner, 2000)이다. “역설적 과정 이론”에 따르면, 사고 억제는 의식적이고 노력을 요구하는 “의도적 작동 과정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역설적 검색 과정(ironic monitoring process)”으로 구성된다. 의도적 작동 과정은 억제 대상을 떠올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역설적 검색 과정은 사고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원하지 않는 생각)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의도적 작동 과정은 많은 인지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지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지 자원이 충분할 때에는 사고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지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억제된 사고가 과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집합주의 성향에 의해 사고 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고 억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자원이 문화 성향의 개인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태극기 억제 조건에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집합주의적 사고만을 억제하면 되지만, 집합주의 성향이 낮은 개인은 집합주의 성향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까지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자원의 소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낮은 집합주의 성향자들은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 이후 의도적 작동 과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높은 집합주의 성향자들은 사고 억제 이후 집합주의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반면, 낮은 집합주의 성향자들은 집합주의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과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설명 모두 문화적 특성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사고 억제 효과를 중재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문화 성향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어떠한 기체에 의해 집합주의 억제효과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본 연구만으로는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상호작용이 문화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의 표출인지, 사고 억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서인지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호작용 기체를 설명하기 적합한 모형을 밝혀내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극기 억제의 조작 검증을 위해 사용된 방법과 그 결과에서 제한점이 발견된다. 우선, 태극기를 생각할 때 마다 종이 위에 표시하라는 연구자의 지시는 통제조건에서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시켰을 수 있다. 또한, 억제/통제조건의 난이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태극기에 대한 생각 양의 차이가 조건별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극기 억제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 성향과 문화 억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데 있어 집합주의적 특성만을 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집합주의/개인주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인간 보편적인 현상임을 감안해 본다면, 개인주의적 특성을 억제한 조건에서도 집합주의 억제 조건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개인주의적 사고를 억제한 선행 연구(박진아, 서은국, 2006)에 따르면, 상호 독립성이 높은 경우 “주변 사람과 가장 다른 점”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조건에서 통제조건에 비해 독특한 도형의 선호도가 감소한 반면($\beta = -.39, t = -2.23, p < .05$), 상호 독립성이 낮은 경우 독특한 도형에 대한 선호도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beta = .23, t = 1.33, p > .10$).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이는 문화 성향에 따른 사고 억제 효과가 비단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동양 문화 내에서 실시된 만큼 집합주의 문화의 특징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hoi와 Choi(2002)에 따르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중립적인 상태를 선호한다. 따라서 태극기 억제 조건에서 높은 집합주의 성향자가 집합주의적 특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낮은 집합주의 성향자가 집합주의적 특성을 회복하려는 동기를 보이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를 선호하는(예; 집합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의 균형을 이루려는 현상) 동양 문화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 연구를 서양 문화에서 실시한다면 집합주의 성향과 집합주의적 사고 억제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동양 문화의 특성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진경 (2005). ‘우리 형’ VS. ‘나의 형’ :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이 1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진아, 서은국 (2006). 개인주의적 사고 억제. 미발표 자료.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 Sage.
- Bakan, D. (199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 Rand McNally.
- Baumeister, R. F. (1998). Ego Depletion : Is the active self a limited resou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52-1265.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lanton, H., & Christie, C. (2003). Deviance regulation : A theory of action and ident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 115-149.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 482.
- Brewer, M. B., Manzi, J. M., & Shaw, J. S. (1993). In-group identification as a function of depersonalization, distinctiveness, and status. *Psychological Science, 4*, 88-92.
- Choi, I., & Choi, Y. (2002). Culture and self-concept flex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508-1517.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Dion, K., & Dion, K. L. (2001). Gender and culture adaptation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 57, 511-521.
- Fromkin, H. L. (1970). Effects of experimentally aroused feelings of undistinctiveness upon valuation of scare and nove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521-529.
- Gailliot, M. T., Schmeichel, B. T., & Baumeister, R. F. (2006). Self-regulatory processes defend against the threat of death : Effects of self- control depletion and trait self-control on thoughts and fears of d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49-62.
- Giallomabardo, R. (1966). *Society of women : A study of a women's prison*. New York : Wiley.
- Helgeson, V. S. (1990). The role of masculinity in a prognostic predictor of heart attack severity. *Sex Roles, 22*, 755-774.
- Helgeson, V. S. (1993). Implications of agency and communion for patient and spouse adjustment to a first coronary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07-816.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í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Hynie, M., Lolonde, R. N., & Lee, R. (2006). Parent-child value transmission among Chinese immigrants to North America : The case of traditional mate preferences. *Research report, 12*, 230-244.
- Kelly, A. E., & Kahn, J. H. (1994). Effects of suppression of personal intrusive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98-1006
- Lieberman, N., & Förster. (2000). Expression after suppression : A motivational explanation of postsuppressional rebou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90-203.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302-318.
- Markus, H., & Kunda, Z. (1986). Stability and malleabil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58-866.
- Menon, T., Morris, M. W., Chiu, C. -Y., & Hong, Y. -Y. (1999). Culture and construal of agency : Attribution to individual versus group dispos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01-717.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Pickett, C. L., Bonner, B. L., & Coleman, J. M. (2002). Motivated self-stereotyping : Heightened 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needs result increased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543-562.
- Saragovi, C., Aubé, J., Koestner, R., & Zuroff, D. (2002). Traits, motives, and depressive styles as reflections of agency an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563-577.
- Singelis, T.,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nell, W. E., Belk, S. S., & Hawkins, R. C. (1987). Alcohol and drug use in stressful times : The influence of the masculine role and sex-related personality attributes. *Sex Roles, 16*, 359-373.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eiw.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Wegner, D. M., Erber, R., & Zanakos, S. (1993). Ironic processes in the mental control of mood and mood-rela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93-1104.
- Wenzlaff, R. M., & Bates, D. E. (2000). The relative efficacy of concentration and suppression strategies of mental contro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200-1212.
- Wenzlaff, R. M., Wegner, D. M., & Roper, D. (1988). Depression and mental control : The resurgence of unwanted negative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82-892.
- Wenzlaff, R. M., & Wegner, D. M. (2000). Thought sup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59-91.

Individual Levels of Collectivism and Reactions to Suppression of Collectivistic Symbols

Jin A Park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reactions to suppression of a collectivistic symbol varies across individuals with different chronic levels of collectivism. Participants in the suppression condition were instructed to actively avoid thinking about the Korean national flag. The cognition pattern of individuals with a strong collectivistic identity became less collectivistic in reaction to the flag suppression instruction. In contrast, those with a relatively weak collectivistic self-view showed accentuated collectivistic tendencies in the suppression condition. The desire to maintain an optimal level of separateness and belongingness (Brewer, 1991) seems to evoke different reactions between high/low collectivistic individuals to suppressions of cultural symbols.

Keywords: Collectivism; Suppression; Individual difference

원고접수 : 2007년 10월 12일
심사통과 : 2007년 11월 6일